

현대그린푸드가 그리팅몰에서 건강빵 10종을 판매한다. 24시간 저온숙성 방식을 사용해 소화가 잘 되도록 했으며 무항생제 계란을 사용했다.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한 '올리브 식빵',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한 '미카스테라', 호밀·귀리·해바라기씨 등 7가지 곡물을 넣은 '통밀 7곡 식빵', 채식주의자를 겨냥한 '비건 식빵' 등으로 구성했다. 정정욱 기자



비즈 포커스 | 4대 금융그룹 '한국판 뉴딜' 적극 동참

수십 조 지원...투자·일자리 창출 팔 걷었다

신한, 85조 투입 데이터거래소 활성화 KB '디지털·그린 융복합'에 9조 투입 하나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집중 우리, 5년간 10조원 들여 뉴딜 지원

4대 금융그룹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

한국판 뉴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다.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진행한다.

신한금융은 23일 '그룹 CEO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그룹이 추진 중인 '신한네오 프로젝트'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5년 간 혁신성장 관련 대출 및 투자에 85조 원을 투입하고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 수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국가경제와 금융산업이 동반 성장하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KB·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그룹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① 지성규 하나은행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정연인 부산중공업 대표이사(왼쪽에서 네번째) 등 하나금융과 부산중공업 관계자들이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② 그룹 CEO 긴급 화상회의를 주재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③ 비대면으로 진행된 'KB뉴딜·혁신금융협의회'에 참석한 윤종규 KB금융 회장. 사진제공 | 하나금융·신한금융·KB금융

KB금융은 23일 비대면으로 'KB뉴딜·혁신금융협의회'를 열고 2025년까지 5개 핵심 추진 과제에 총 9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5개 과제는 한국판 뉴딜 사업 중 민간투자 규모가 큰 '디지털·그

린 융복합'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금융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하나금융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금융프로젝트'에 착수하고 1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친환경 산업과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사업 투자도 추진할 예정이다. 첫 걸음으로 24일 부산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부산그룹이 진행하는 풍력, 수소연료 에너지 등 그린에너지 산업에 금융지원을하기로 했다. 김경태 하나금융 회장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금융은 '혁신금융추진위원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지원방안을 세우고 그룹 자회사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5년 간 디지털 뉴딜 부문 3.3조원, 그린 뉴딜 부문 4.5조원, 안전망 강화 부문 2.2조원 등 총 10조 원을 지원한다. 기존 추진하던 3년 간 20조 원 규모의 혁신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손태수 우리금융 회장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금융지원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한 사회적 책임 수행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도움되길...” LG 구광모 회장, 사재 10억원 기부



구광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10억 원의 사재를 연구기관에 기탁했다.

27일 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후원회는 "구광모 회장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류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백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에 개인적으로 기부금 10억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국제백신연구소는 "백신개발이 더욱 속도를 높여주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구 회장의 기부 취지도 전했다.

구 회장의 기부금은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를 통해 국제백신연구소에 전달됐으며 연구소는 인체 면역 체계의 코로나19 예방 원리 이해연구, 백신 등에 대한 인체 면역반응 개선을 위한 연구, 백신들이 유도하는 중요한 면역반응을 측정하는 국제백신연구소의 역량강화와 세계 전역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대상 지역 준비 등에 기부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제철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돕기 위한 구광모 회장의 따뜻하고 시의적절한 후원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연구소는 협력기관들과 힘을 모아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제백신연구소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의 개발과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KT&G, 14년째 임대배 수확봉사 진행

KT&G(사장 백복인)가 24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배 농가들을 돕기 위해 경상북도 문경 지역에 수확 봉사활동(사진)을 진행했다.

임대배 농사는 한여름철인 7~8월에 수확이 집중되며, 기계화가 어렵고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내 농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G는 농가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2007년부터 매년 봉사활동을 실시해 농민들과의 상생을 지속해오고 있다. 올해는 30여 명의 임직원이 문경시 가은읍의 임대배 농가를 방문해 3000㎡의 농지에서 약 4000kg의 임대배 수확 봉사활동을 펼쳤다.

양형모 기자

우리은행 '우리아이 행복만들기 이벤트'

우리은행이 완구업체 영실업과 함께 '우리아이 행복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8월 31일까지 '우리아이 행복만들기'를 신규 가입하고 자동차를 신청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영실업의 포켓V와 시크릿주주 완구를 제공한다. 또 내년 7월까지 '우리아이행복만들기'를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 꼬꼬초이 5000원 할인쿠폰을 준다.

정정욱 기자

롯데리아, 치킨버거 2개 3900원 프로모션

롯데리아가 29일까지 인기 메뉴 치킨버거 2개를 3900원에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치킨이 쉬운 요즘 '든든하게 여름 나기!'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장방문 시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홈서비스 및 추가 할인 등 중복혜택 적용은 불가능하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여름철 대표 메뉴인 치킨을 소재로 롯데리아의 인기 메뉴인 치킨버거를 활용한 프로모션을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원성원 기자 sereno@donga.com

“지방세,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신한카드, '마이빌엔페이' 전국 확대 삼성카드도 모바일 고지 서비스 론칭

카드업계가 모바일을 통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신한카드는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마이빌엔페이'를 통해 제공하는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전국 확대 기점으로 9월 30일까지 마이빌엔페이에서 지방세 전자고지서를 신규로 신청하고 수신하면 최대 2000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한다. 또 전자고지서 수신 후 즉시 납부를 할 경우 추가 2000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다.

삼성카드는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융결제원과 공동 협약을 맺고 모바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삼성카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 사진제공 | 삼성카드

입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를 론칭했다. 우편을 통해 받은 고지서를 삼성카드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앱카드로 납부까지 가능하다. 등록면허세, 상·하반기 자동차세, 건물본 재산세, 주민세, 토지본 재산세, 과태료, 과징금 등이 대상이다.

9월 30일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한 모든 고객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납세 편의뿐 아니라 종이고지서를 줄여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삼성카드 측 설명이다.

정정욱 기자

맨즈 | 신한지 기자 mythuki@donga.com

첨단 '퀄리티 에어' 공조기술 적용 현대차 실내공기 맑고 쾌적해진다

에어컨 냄새 없애고 곰팡이 예방 제네시스 등 신차에 선별적 적용

현대자동차그룹은 차량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하는 '퀄리티 에어' 기술을 향후 출시되는 현대차·기아차·제네시스 신차에 선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개발한 신규 공조 시스템은 애프터 블로우(After Blow) 기술, 멀티 에어 모드(Multi Air Mode) 기술, 실내 미세먼지 상태표시 기술 등 세 가지다.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은 애프터 블로우다. 여름철 차량 내 에어컨 냄새 문제 해결을 위해 응축수가 맺혀있는 에바포레이터(증발기)를 바람으로 말리는 기

술이다. 기존 차량은 에어컨을 작동하며 운행하다 목적지에 도착해 시동을 끄면 증발기에 남아 있는 응축수로 인해 곰팡이 등 세균이 번식해 냄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애프터 블로우 기술은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 30분간 에바포레이터에 생긴 응축수의 자연 배수과정을 진행한 후 공기를 불어주는 블로우 모터를 작동시켜 바람으로 증발기와 공기 통로에 남은 응축수를 10분간 건조시켜 곰팡이 증식을 예방한다. 이 기능이 작동될 때 공조 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자동 전환돼 실내가 습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멀티 에어 모드(Multi Air Mode) 기술은 다수의 송풍구를 활용해 은은한 바람으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냉방과 난방 때 모두 작동시킬



현대자동차그룹이 쾌적한 차량 실내 공기 유지를 돕는 '퀄리티 에어' 공조 기술을 개발했다. 공조설계팀 연구원들이 애프터 블로우 기술의 핵심 부품인 에바포레이터와 블로우 모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 현대차

수 있다.

운전자 멀티 에어 모드를 작동시키면 기존 송풍구 외에도 운전석과 조수석에 위치한 멀티 에어슬롯(미세한 구멍이 뚫린 에어스크린)에서 바람이 분산되어 나와 실내 전반에 골고루 퍼지며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준다.

새로운 실내 미세먼지 상태 표시 기술도 선보였다. 차량 실내 공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수치화된 미세먼지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해 보다 효율적으로 차내 공기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대차그룹은 이번엔 선보인 애프터 블로우 기술, 멀티 에어 모드 기술, 실내 미세먼지 상태표시 기술을 향후 출시 예정인 신차에 적용할 계획이다.

원성원 기자 sereno@donga.com